

김속삭 이력서 심사 리포트

서비스기획 · PM

중견/대기업 IT

신입

종합 61 / 100

01 첫인상 — 3초 컷 판단

"경험의 양은 충분한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인지'가 3초 안에 안 잡힌다."

02 스펙 대비 합격 가능성 리얼 체크

중상위 (상위 30%)

슈퍼대 3.83 + 슈퍼인턴 인턴 + 앱 출시

보통

스펙이 서류를 막지는 않으나 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중견/대기업 IT PM 신입 기준선: 인서울 3.5+, IT 인턴 1회 이상, 앱 출시 or 도메인 프로젝트 경험 → 이 지원자는 기준선 이상이다. 문제는 스펙이 아니라 서류가 스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03 서류 항목별 점수

항목	점수	냉정한 한줄 진단
직무 연관성	15/20	이커머스 기획·UGC 운영·앱 PM 경험은 직결되나, 식음료 브랜드 인턴·오프라인 매장 경험이 불륨을 차지하며 초점을 흐림
경험·성과의 구체성	13/20	CTR 2배, 검수 4배 단축 등 수치는 있지만 맥락이 없어서 임팩트가 반감됨
수치·근거의 신뢰도	10/20	"4배 단축", "6배 감소" — 기저값 없는 배수는 신뢰보다 의심을 먼저 부른다
차별성 (왜 이 사)	11/20	0→1 앱 출시 + 패션 이커머스 기획 조합은 차별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연결하는 서사가 없음

람인가)

가독성·구성

12/20

정보량은 많으나 위계가 없고, Soft Skill·동료평가가 불으며 이력서가 아닌 포트폴리오처럼 읽힘

종합 점수

61/100

좋은 경험을 서류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04 치명적 문제 —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

✘ 문제 1 수치에 기저값이 없다

왜 치명적인가

"CTR 2배 증가"가 0.5%→1%인지 5%→10%인지에 따라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저값 없는 배수는 면접관에게 의심만 심는다. 대기업 IT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PM의 핵심 역량으로 보기 때문에, 수치를 아무렇게나 쓰는 것 자체가 감점이다.

어떻게 바뀌야 하는가

"CTR X% → Y%로 개선 (필터 도입 후 4주 기준)" 형태로 기저값·개선값·측정 기간을 명시. 공개 불가 수치라면 "내부 데이터 기준"이라는 주석이라도 달아라.

✘ 문제 2 IT 직무와 무관한 경험이 커리어 섹션 중간에 있다

왜 치명적인가

중견/대기업 IT PM 서류에서 오프라인 매장 CS 매니저 경력이 커리어 섹션 중간에 위치하면, 면접관이 "이 사람 커리어 방향이 맞나?"라는 판단을 0.5초 안에 내린다. 경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맥락이 문제다.

어떻게 바뀌야 하는가

삭제하거나 완전히 뒤로 빼고 분량을 1/3으로 줄여라. 살린다면 "VoC 구조 설계 + Notion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PM 프레임으로 만 2줄 이내로 압축.

✘ 문제 3 Soft Skill 자기 서술과 동료 평가가 이력서 메인에 있다

왜 치명적인가

"추진력 —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요"는 모든 지원자가 쓰는 말이다. 동료 평가 인용은 진정성 있어 보이려는 시도이지만, 검증 불가능한 정보로 읽히며 서류 밀도를 낮추고 아마추어 인상을 준다.

어떻게 바뀌야 하는가

Soft Skill 섹션 전체 삭제. 동료 평가도 삭제. 이 자리를 실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서술로 채워라. 성격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05 AI 툴 흔적 탐지

감지된 AI 투세 표현

"명확한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서비스 기획자"

PM 지원서 10장 중 7장에 나오는 문장 구조.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는"은 AI 자소서 톨의 전형적인 출력 패턴이다.

진정성 의심 구간

동료 평가 섹션 — "완벽한 PM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이거 본인이 쓴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구간. 설령 진짜 동료 평가라도 채용 서류에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역효과다.

개선 방향

기존 → "명확한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서비스 기획자"

개선 → "UGC 공급이 막혔을 때 운영 정책을 0에서 설계하고 검수 구조를 바꿔 6배의 운영 효율을 만든 기획자입니다."

실제로 부딪힌 상황 + 본인이 설계한 해결 구조로 대체할 것.

06 기억에 남는 키워드 & 옛지 진단

UGC 운영 0→1 기획 검수 효율화 운영 정책 앱 출시

있음

단, 현재 숨겨져 있음

22%

현재 구성 기준

55%

옛지 전면 배치 시

옛지 판단 근거: 패션 이커머스 인턴에서 단순 운영이 아니라 운영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기능 기획까지 한 점, 그리고 IT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앱을 출시하고 1,000명 유저를 확보한 경험은 신입 PM 지원자 100명 중 10명 안에 드는 이력이다. 문제는 이 옛지가 무관한 경험·Soft Skill·동료 평가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07 합격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전략 1 · 가장 임팩트 큰 것

이력서 구조를 재편하라

Career → Project → Awards → About me (Soft Skill + 동료평가) 순서

Career / Project / Awards / About me (Soft Skill + 동료평가) 편집

핵심 IT 인턴(압축·강화) → 앱 출시 프로젝트(수치 보강) → IT 동아리 → 수상·자격증 → 끝. 비관련 경험 1~2줄 이내 축소 또는 삭제. Soft Skill·동료평가 섹션 전체 삭제.

면접관은 앞 30%만 제대로 읽는다. 지금은 핵심 경험이 비관련 내용에 희석되고 있다.

전략 2

수치를 "기저값 → 결과값 + 맥락" 구조로 재작성하라

"검수 소요 시간 4배 감소", "문의량 6배 감소"

"검수 소요 건당 X분 → Y분 단축 (월 Z건 처리 기준)", "가이드 배포 후 주간 문의량 A건 → B건 감소"

수치 작성 방식 하나로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으로 읽히는 방식이 바뀐다.

전략 3

도입부 한 줄을 이 지원자만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라

"명확한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서비스 기획자"

"UGC 공급 병목을 운영 정책 설계와 검수 자동화로 풀었고, 그 경험으로 기능 기획까지 확장한 PM입니다."

도입부가 달라지면 그 뒤의 경험 전체가 다르게 읽힌다. 지금 도입부는 아무 서류에나 붙일 수 있는 문장이다.

09 최종 판정

적정 지원

조금 더 다듬어서 지원하세요.

이 서류의 강점

패션 이커머스 인턴에서 운영 → 정책 설계 → 기능 기획으로 확장한 실무 경험과, 앱을 0에서 출시하고 유저 1,000명을 확보한 PM 경험은 신입 시장에서 실제로 희소한 이력이다. 이 두 경험만 제대로 살려도 서류 경쟁력은 크게 올라간다.

가장 고쳐야 되는 1가지

수치의 기저값을 넣어라. 이것 하나만 해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으로 읽히는 방식이 바뀐다. 지금 이 서류의 가장 큰 손해는 좋은 경험을 숫자로 증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